

# 이 땅에 영원히 울려 퍼질 사회주의주제가입니다

—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들으며 —

이제 며칠 있으면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일출다섯번째로 생일을 맞습니다. 그 뜻깊은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룰수 없는 격정이 가슴에 파도쳐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존엄성은 그 이름의 탄생과 더불어 장장 75성상 로지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왔고 오늘은 행성위에 우뚝 솟아올라 람홍색공화국기

의 눈부신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는 내 조국이 아닙니까. 더우기 남다른 인생행로를 걸은 나에게 있어서 오늘의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은 참으로 형언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이제 80고령을 눈앞에 두었지만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광의 이 시각 심중에 차고넘치는 격정을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서러움과 외로움으로 얼어 들었던 내 가슴을 따뜻한 혈연의 정으로 녹여주며 흘러드는 가사와 선물은 얼마나 친근하게 폐부에 와닿는지 마치 오래동안 부른 노래처럼 생각되면서 쉽게 배울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영원한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나와 류다른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수도의 명소들과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회주의가야말로 나만이 아닌 온 겨레가 안겨줄 참다운 인민의 세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라난 사랑하는 내 딸 촉부이가 저녁이면 피아노앞에 마주앉아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라고 노래 부르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한한 행복감에 잠겨들곤 합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우리 공화국이 미제와의 대결에서 또다시 패승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만고절세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있었기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어떤 반세기상이 지난 오늘 우리 조국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초강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돐 경축 열병식을 보면서, 열병광장을 누비나간 절대적권의 실체들을 보면서 나는 뿔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어 탄세를 부르기도 못했습니다. 나의 눈가에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민족이 당하던 수난의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반만년의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였지만 령강들의 각축전장이 되고 종양에는 대포와 함선을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겨 왔던 우리 민족, 나라가 없으니 국제정기무대에 없었고도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던 참담한 비극,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고가고 두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하던 시인들, 선조들이 물려준 슬픈 기억이 스쳐오르며 울려 퍼지는 그날로부터

명진쟁준비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영웅적인민해군의 강대성을 계속 높이 떨치고 그 영예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우리모두 용감히,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해나아가자고 하실 때 고령의 이 몸에도 억척의 힘이 샘솟는것만 같았습니다.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바다는 물론 우리의 땅과 하늘 그 어디도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수령이 위대하면 인민도 위대해지고 나라도 강국으로 존엄됩니다. 하기에 이 땅에서는 언제나 철세위인을 높이 모신 승리자들의 신심넘친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는 것입니다. ... 우리 힘 꺾을자 그 어찌 있랴 무량도 무섭지 않네 백두의 녀를 이어 빛나는 내 조국 두렵몰라라 ...

온 나라 가정에 따스히 스며드는 은혜로운 아버지 사랑입니다. 오늘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천하무적의 절대적권으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버지입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야 한다. 등단한 반석위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러 되어야 무궁영원의 부국도 될수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시고 생사를 가늠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화선길들을 무수히 헤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오늘의 강국을 떠올리셨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은 세상에서 제일로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인민의 아버지입니다. 경애하는 그이의 리상은 우리 나라를 인민들모두가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천하제일각으로 일떠세우실 것입니다.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으시고 우리 원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위민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고계십니다. 나는 얼마전 TV화면으로 비쳐지는 영상사진본문을 보며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니 글세 경애하는 그이께서 남모시어 위치한 안석간석에서 나가시어 허리까지 차오르는 침수된 간석지물에 서 계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허리가 잠겨드는 감람물을 앞장에서 헤치고 무섭게 사물치는 격류에 언제 허물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제방우에도 서 계시어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러한 인민의 아버지를 높이 모시어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나날이 높아가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축복이의 일기의 한 토막을 적으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이끌리어 주신 축복이 오 늘은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존엄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가 있어 온 나라가 밝아지고 그 품속에 사람들모두가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내 조국은 눈부신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라 높이 모시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축복이 한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입니다. \* \*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이하는 환희로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뭉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케리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들은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고부르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맞이할것입니다. 비전향장기수 리 재 룡

##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리재룡선생님의 지정곡을 불러주시십시오!》 이것은 내가 어디에 가거나 반군 하는 청탁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사람들의 요란한 박수갈채에 떠밀리워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내가 23살 나던 해인데 공치매를 따라 떠났던 우리 배는 갑자기 기관고장으로 사나운 풍랑에 밀려 정척없이 표류하던중 조선인민군 해병들에 의해 구원되었습니다. 솔직히 14살때부터 《새기배군》으로 불리며 늘 사자발을 지고다니던 나에게 있어서 뜻하지 않게 공화국 땅을 밟게 된것은 인생에 다시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때 피를 나눈 친형제들 에게서도 받지 못하던 살뜰한 정을 공화국의 이름모를 사람들에게서 매일같이 받으며 나는 매일 살았던 혈육의 정을 가슴뜨겁게 느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형님, 누나가 되어주고 친부모도 못다 준 애듯한 정을 부어주는 놀라운 세상,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까지 차려주며 자식의 효도를 다하게 해주는 고마운 세상을 보면서 나는 막막한 인생으로 버림받으며 온갖 천대속에 살아온 지난날이 떠올라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공화국은 내가 태어나 처음 보는 따뜻한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인정에 굶주렸던 나를 얼싸안아준 덕과 정의 화원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뭉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가요 《세상에 부림없어라》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나의 지정곡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남녀로소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나온지도 어떤 반세기가 넘었지만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과 감화력으로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습니다.

그 후의 일이었다. 세상에 저들을 집드린 나라는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마구 짓밟던 미국은 수 많은 항공포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고 배와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던 당장 원산항을 폭격하겠다는니 뭐니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조국에서는 미국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폭탄같은 선언이 울려나왔습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의 부르심을 받들고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공화국의 단호한 기상과 위력에 질절한 미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사죄문을 써서 바치고서야 선원들을 겨우 데려갈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대참패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뽐어오릅니다.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나를 죽여야만 내가 살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인생관이 지배하는 피폐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덕과 정의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후날 나는 피폐지역의 철창속에서도 진정한 내 조국의 주제가인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부르며 혁명적진념과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의 명곡이 가지는 생명력은 이렇듯 죽음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가 있어 온 나라가 밝아지고 그 품속에 사람들모두가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내 조국은 눈부신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자애로운 아버지라 높이 모시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축복이 한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입니다. \* \*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이하는 환희로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 동무들 다같이 노래를 부르자 손뭉금소리 맞추어 천리마 나케리는 내 조국 백화가 만발하였네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들은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고부르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맞이할것입니다. 비전향장기수 리 재 룡